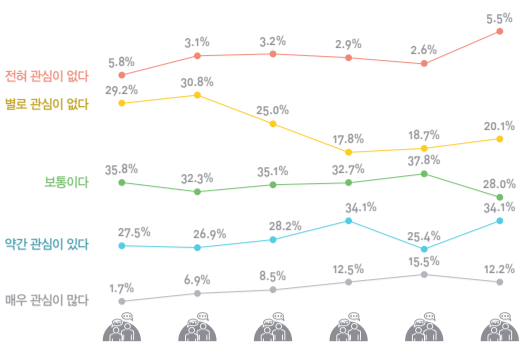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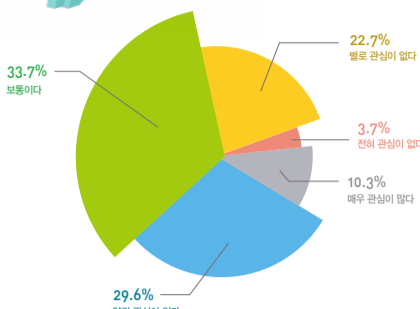




한 눈에 보는 2021 경남도민 통일 인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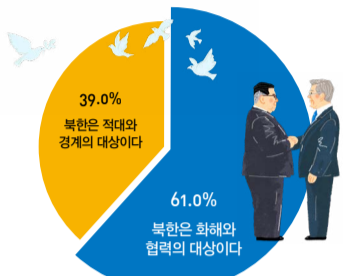
· 모집단: 경상남도 18개 시군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남민 · 표본단위: 1003명 (표본오차는 95% 신뢰수준에서 ±3.10%)
· 조사방법: 1대 1대면 설문조사 · 조사기간: 2021년 11월 5일~11월 30일 ·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 김두영 팀장, 정주아 연구원

평소 한반도 통일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가요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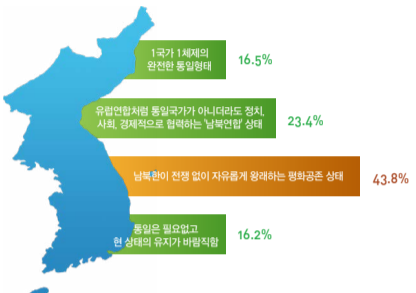
통일에 관심있는 경남도민이 39.9% 예요.
그중 밀레니얼 세대의 통일 관심비율은 20대(29.2%), 30대(33.8%)로 제일 낮았어요.

북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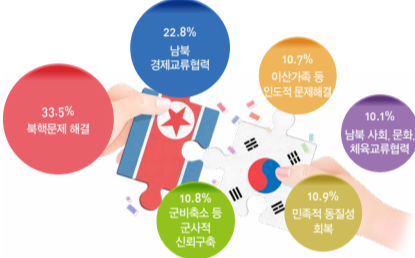
경남도민의 61%가 북한을 '화해와 협력의 대상'으로 보고 있어요.

바람직한 통일형태는 어떤 것인가요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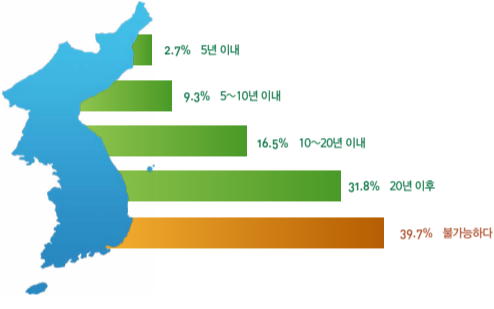
북한과 한 국가로 통일하기 보다는 남북한이 전쟁없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평화공존 상태의 선호도가 높았어요!

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인가요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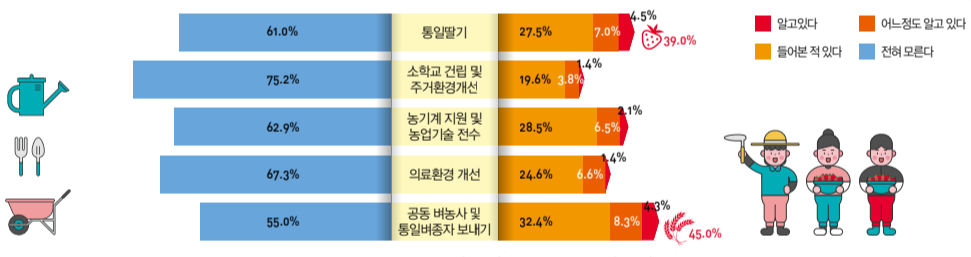
경남도민은 '북핵문제해결'(33.5%)을 제일 시급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 '남북 경제교류협력'(22.8%)이 필요하다고 했어요.

통일은 언제쯤 가능할까요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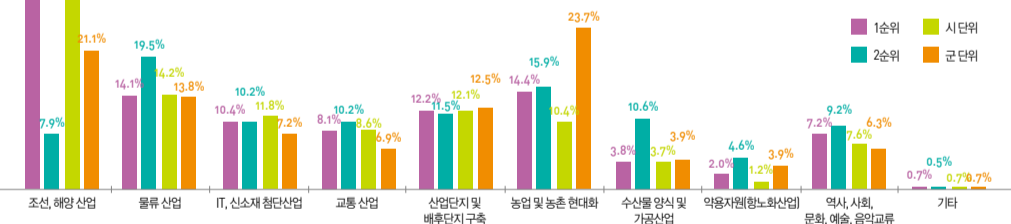
경남도민의 39.7%가 통일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. 통일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 같아요!

경남의 대표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알고 있나요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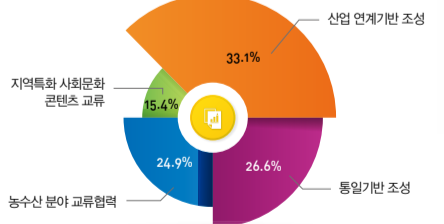
'공동 벼농사 및 통일벼종자 보내기'(45%), '경남 통일딸기'(39%) 등 농업협력 분야 사업 인지도가 가장 높았어요.

남북교류협력사업이 다시 시작된다면 경남은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까요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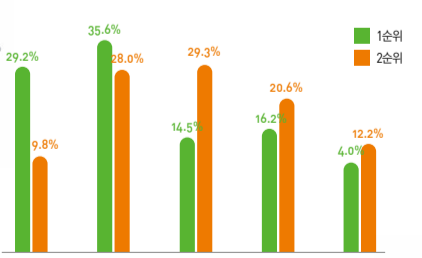
경남도민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'조선, 해양 산업'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어해요. 2순위는 '물류산업'이네요. 시 단위는 '조선, 해양'을, 군 단위는 '농업 및 농촌현대화' 산업을 제일 선호했어요.

경남이 추진하는 '남북교류협력 4대 분야'에서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두어야 할까요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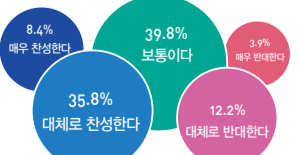
경남도민은 '산업 연계기반 조성'(33.1%)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. 특히 시 단위는 '산업 연계기반 조성'(38.4%)을, 군 단위는 '농수산 분야 교류협력'(35.1%)을 제일 선호했어요.

경남도민은 북한의 어느 도시와 교류하길 원하시나요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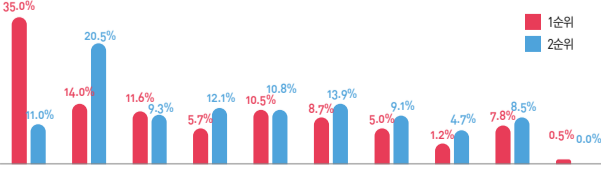
경남도민은 1순위로 '개성', 2순위로 '원산'과 교류하고 싶어해요.

부울경 공동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



경남도민 44.2%가 부울경 공동 남북교류협력사업 진행에 찬성했어요. 권역별 찬성 비율은 동북부권(50.8%)이 제일 높았고, 서북부권(35.2%)이 제일 낮았어요.

경남이 부산, 울산과 협동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한다면 어떤 사업이 적합할까요?



1순위로 '조선, 해양산업'이 압도적이에요. 그 다음으로는 '물류산업'을 원하시네요.